

## 가나아트파크 피카소 어린이 미술관

국내 최초로 개관한 <피카소 어린이 미술관>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피카소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제작한 판화, 도자기, 그리고 피카소의 모습을 담은 앙드레 빌레르(Andre Villers, 1930~2016)의 사진 등 많은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피카소를 알아볼까요?

1881년



스페인 남부에 자리한 '말라가'라는 곳에서 미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피카소는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린 피카소는 비둘기와 여러 동물들, 투우경기를 즐겨 그렸다고 해요.

1895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바르셀로나 미술학교에 당당하게 입학했습니다.

1900년



파리에서 작품활동을 시작했어요. 피카소는 푸른색의 작품을 주로 그려서 <청색시대>라고 불려요.

1907년



한 화면에 여러 시점을 표현한 최초의 입체주의 작품 <아비뇰의 처녀들>을 발표했어요. 파리에서 화가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1973년



피카소는 92세가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순간도 작품 활동을 쉬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화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피카소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데 로스 레메디오스 시프리아노 데 라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루이스 이 피카소” 입니다.

후! 숨차다. 엄-청 길죠?

이 긴 이름을 짧게 줄여서 “피카소 또는 파블로 피카소”라고 부른답니다.

## 피카소 어린이 미술관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피카소는 다양한 소재와 표현기법으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한 화가입니다. 회화부터 도자기, 판화,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피카소의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피카소의 판화

피카소는 1945년 브라크의 소개로 석판화 작업을 시작하게 돼요. 판화의 기존 기법보다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판화작품을 제작하였어요.



### 피카소의 도자기

피카소는 도자기 제작에도 폭 빠졌어요. 그는 주위 친구들, 동물, 풍경 등 다양한 소재로 접시, 화병 등을 만들었어요.



### 피카소의 사진

1953년 피카소는 발로리스에서 앙드레 빌레르를 만나게 돼요. 그는 피카소의 작업실에 자주 찾아가 피카소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담았어요.

피카소와 동물

## 🔍 작품 속 동물을 찾아보세요!

피카소는 동물들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래 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작품 속에 있는 동물이 보이나요?



나는 누구일까요?

피카소는 매력적인 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밤에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피카소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한 경기입니다. 투우사가 들고있는 빨간 천을 따라다녀요.



나는 누구일까요?

피카소가 애정을 가지고 직접 집에서 키운 동물입니다.

# 피카소와 닭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나는 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밤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기며 활동을 한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피카소는 자신처럼 큰 눈을 가진 부엉이를 좋아했어요. 부엉이에 매료되었던 피카소는 도자기에 부엉이를 많이 그렸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부엉이> 1950년 경  
 도기에 채색 후 유약  
 28.5 x 15 x 22 cm



<부엉이> 1950년 경  
 도기에 채색 후 유약  
 30 x 23 x 16 cm



<부엉이> 1953  
 도기에 채색 후 유약  
 31 x 18 x 25.5 cm

##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려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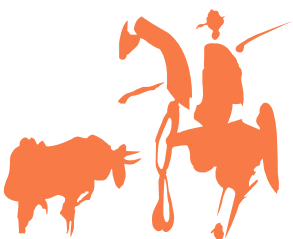
나와 닭은 동물 또는 좋아하는 동물을 피카소처럼 그려보세요.



피카소와 동물

## 🔍 점선을 따라 그려보세요! 어떤 동물 일까요?

피카소는 동물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어요.  
특히 소는 피카소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중에 하나랍니다.




### 피카소와 투우

어릴 때부터 가까이 보고 즐겼던 투우경기는 피카소가 좋아하는 작품 주제였어요.  
피카소는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투우를 관람했습니다.

## 🔍 뒤죽박죽 입체주의는 무엇일까요?

피카소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얼굴의 앞모습, 옆모습을 한꺼번에 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가능했을까요?



Q. 내 왼쪽 눈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_\_\_\_\_’을 보고 있어요!

Q. 내 오른쪽 눈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옆’을 바라보고 있어요!

Q. 내 코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_\_\_\_\_’을 보고 있어요!  
 Q. 그러나 콧구멍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_\_\_\_\_’을 보고 있어요!

Q. 내 입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_\_\_\_\_’을 보고 있어요!

## 다양한 표정이 있는 자화상 그리기

자신의 얼굴을 피카소 작품처럼 표현해 보세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눈, 코, 입을 그려 개성있는 자화상을 완성해 보아요.



뒤죽박죽 서로 다른 곳에서 본 눈, 코, 입을 한 번에 그리니까 새롭고 재미있는 그림이 탄생되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모습을 하나의 화면에 그리는 것을 입체주의라고 부릅니다.